



이것이 바로 축산분뇨 처리의 현주소다



이종영

보령시 낙농인연합회장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원흉인가

요즈음 축산업, 축산업자 하며는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 축산분뇨와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수질오염, 악취 그리고 하절기에는 파리와 모기를 연상하기에 한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정을 나누며 살아오던 이웃사촌도 축산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게 되며 타지역에 이전해서 축사를 신축하려면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먼저 그 지역 주민에 동의서를 요구하며 그 후에야 허가상에 행정절차를 밟게한다.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은 이장, 반장을 중심으로 모두다 반대이사를 표시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행정당국에서

축산폐수 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 해도 경우는 마찬가지이다.

그지역 주민의 의사는 모두 이렇하다. 타지역은 몰라도 우리지역만은 안된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반대를 한다. 그래도 안되면 도로 곳곳에 붉은색 글씨로된 프랑카드를 내걸고 부락민 전체가 농성에 들어간다.

프랑카드 내용을 보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 똥공장이 웬말이냐..”

“똥공장 유치한 ○○○ 물러가라”

등등의 내용들이다. 그래도 안되면 후보지에 보은뎡게로 집을 짓고 철,야로 똥공장 유치 반대투쟁을 한다.

축산인이 살고있는 곳도 이렇하

니 과연 어디가 후보지가 되어야하는지

정말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원흉인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하며 그러한 것인지... 아니 해결책은 없는지... 모든 축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문제는 간단하다는 명쾌한 답도 있다. 그러면 축산폐수를 단속하는 행정당국 검찰의 업무량도 줄고 지역주민에 집단 민원으로 골치 썩는 일도 없고 신문, TV에 축산농가에서 무단 방류한 축산폐수로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보도 역시 전무할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고있는 이 세상 구조는 너무나도 묘하지만 하다. 꼭 필요한것도 없고 필요없는 것도 없다. 그러나 체아무리 재주좋고 영리한 사람도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가 있고 먹자면 그 중요한 먹거리는 흙에서 생산해야 하며 그 흙은 축분을 먹어야만 기름진 옥토로 변한다. 즉 農畜不二(농축불이) 축산이 없이는 농업이 없다고 본다. 근자에 자주 보도되는 기사 중에는 “세계 곡물 가격 폭등”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하며 죽어가는 우리 흙에 생명력을 불어넣자고 환경친화적 농법 실천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자며 야단법석이고 새로 임명된 정시채 농림부장관 취임사에서 보면,

“식량 외국의존 있을 수 없는일”
 “농업환경 문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또 농업의 선진화와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도록 과감하게 농정을 추진하겠다. 모두다 먹는문제를 해결하겠다는것 아닌가. 그러나 과연 지금 농촌의 축산농가는 어떠한가. 우리 축산농가의 고민중에서 고민은 병든흙을 살려서 토양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워 놓고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큰자원 「축산분뇨」 처리에 고심하다가 급기야는 축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지 않은가.

왜인가?

최근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률 제정으로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단정하고 환경오염물질로 분류하여 취급하니 마치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에 주범으로 오인되고 축산업 자체가 혐오감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됐다.

축산폐수라는 용어앞에 전과자가 될 위기

정말 축산분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원흉인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하며 그러한 것인지..., 아니 해결책은 없는지..., 모든 축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문제는 간단하다는 명쾌한 답도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재주 좋고 영리한 사람도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가 있고 먹자면 그 중요한 먹거리는 흙에서 생산해야 하며 그 흙은 축분을 먹어야만 기름진 옥토로 변한다. 즉 農畜不二(농축불이) 축산이 없이는 농업이 없다고 본다.

축산농가는 몇년주기로 강화만 되는 법률과 규제와 단속에 설문을 잃고 심하면 행정당국에 고발되어 지역 검찰청을 드나들다 급기야 축산폐수라는 용어앞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들었으며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주변 상황이 축산인에게 환경에 관한 변화를 강요했지만 이것을 소홀히 한 것인지 정책당국에 역할이 부족했는지...

그동안 환경당국은 환경분야만 강화해 나가고 축산업 분야는 축산진흥책만 펴왔으니 이제와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환경과 축산업이 상호보완적이 못되었던말이다. 그러한 속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진흥 정책이고 흙 살리기 운동, 식량증산이 모두가 다 하나의 구호일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디 그것뿐인가.

96년 7월1일 부터 강화된 환경법이 시행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낙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리스틀 축사에서 축분을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처리할때 투입조, 저장조, 저유조로 구분해서 축사면적에 60%~70%에 해당하는 면적에 액비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그 공사비도 엄청나지만 문제는 가축, 두당 짓소의 경우 초지 1,180㎡ 농경지 1,650㎡을 확보 해야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필자의 경우 93년에 후리스틀 축사936㎡ 착유장, 대기장 256㎡을 신축해서 스크래퍼로 분뇨처리를 해서 68평의 액비저장조에 저장해서 연2회 2만평의 사료작물포에 살포하지만 너무 부족해서 인근 양돈장에서 년 15t덤프트럭 100대분량을 가져다 이용하고 있는데 사료작물을 재배해보니 짓소 1두당 150평~200평의 농경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화된 법은 1두당 500평을 확보하라니 어느 축산농가도 이해 못하며 이법은 우리실정을 전혀 반영



하지않고 외국의 환경법만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려하니 그 속에서 축산농가만 안전부절이다.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간이 정화조 F.R.P 폭기정화조, 톱밥토양 여과장 등을 설치해가며 강화만 되가는 환경법을 맞추어 나가려니 계속 투자만 반복되고 먼저 시설물은 버려야되니 분노처리는 골치중에 골치거리로 등장했는데 그속에서도 환경당국은 강화된 법대로처리 한다고 허가대상 농가 신고대상 농가를 차곡차곡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있으니 마을어귀에 낫선차량이 드려오면 또 단속차 나온 차량으로 생각하고 우선 축산농가는 겁부터 먹는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어른들께서 밀주단속반이나 산림순찰을 무서워 하듯... 지금 강화된 환경법으로 국내에 축산농가를 단속, 처벌, 하기로 말하면 처벌대상이 안될 농가가 과연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당국에서는 좀더 축산농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어야만되지 않겠는가.

필자의 경우 96년 9월 과거에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 농가로 새법은 정해져 있는데 강화된 환경법대로 저장액비조 설치가 안됐다고 보령시 청소과에서 홍성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검찰청 수사3계로 출두하라고 하기에 주변 공기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거운 검찰청 대기실에 찾아가서 조사순서를 기다리는데 먼저와서 기다리던 축산농가 몇분이 연실 담배만 피우며 신세타령을 하고 있다.

“더러워서 못 해먹어. 축산업을 그만두자니 생계가 막막하고 계속하자니 계속 강화되는 환경법을 따라갈 수 없고 검찰이 너무하다 생각되지만, 내손으로 국회의원을 잘못 찍어서 그들이 만든 법이 이뿐이니 내손을 원망해야지 뭐. 검찰은 그 법을 집행할 뿐 아닌가 ...”

지금 축산농가 실정은 강화된 법대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정부당국에서 과감한 지원이 있기바라며 몇년 주기로 계속 강화만되는 법을 우리농가는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으며

좀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정책은 농림부 장관은 분뇨처리 잘해서 사료작물에 이용을 매우 훌륭히하는 시범농가라며 표창장을 수여하고 한쪽 환경부 장관은 환경법에 위반이된다고 구속하겠다고 하니 우리농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세계 어느나라도 축산분뇨를 정화한다는 나라는 없고 잘처리해서 토양에 환원 자연보호차원으로 다루는 줄로 압니다. 담당 조사계장이 나의 진술내용과 축산폐수처리 신고 필증을 복사하더니 오늘은 이만 돌아갔다 다시 호출하면 출두해 달라고 하기에 돌아왔다. 며칠 후 또 다시 호출하여 조사를 하더니 이번에는 수사과장실로 안내되었다.

수사과장님은 “당신이 보령시 낙농인연합회장 이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강화된 환경법대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지 지금까지 당신 진술조사 내용을 보면 축산인들은 열심히 잘하고있는데 우리실정에 안맞게 법만 계속 강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요. 강화된 법을 적용하면 당신 지금 구속할 수도 있소. 법대로 저장조설치를 할 것이요. 아니면 목장 문을 닫을 것이요.”라며 선택을 하라고 야단이다.

“시간을 주십시오. 97년 6월30일 까지 설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시청 청소과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문제는 막대한 설치 비용이 큰 문제다.

분뇨처리 시설비용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

축사, 착유장, 대기장, 착유기세척용 물양을 전부 용적으로 계산하니 추가로 1,630㎡에 저장조를 설치해야 한다. 공사비용이 무려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요즘 홀스타인 숫송아지 시세가 20만원이라고 하니 법 몇자 강화되는 바람에 숫송아지 200두를 팔아야 되고 착유우를 120만원으로 계산할 때 35두의 착유우를 팔아야 하지 않은가. 젓소를 팔아서 저장조나 설치하고 마음 편히 축산업을 한다고 온가족이 저장조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다.

검찰과 약속된 준공 일정을 못 지키면 구속하겠다고 겁질이 야단 일테고 물론 정부에서 97년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1천2백74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선축산현장에서는 어떠한가 축산분뇨 처리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시, 군, 축산계에 제출해야 하는데 축산계에서는 행정공문으로 면사무소 경유 동네이장이 축산농가에 전달하게 하니 제대로 전달이 안되며 미처 전달을 못받아서 신청 못한 농가는 축산계직원은 몇명씩 있으면서 각지역 낙우회, 양돈회, 한우회로 왜 직접 연락을 안했는가 또 동네이장은 무엇하는 것인가. 공문서 하나 제대로 전달 안해준다며 큰 언성이 오고간다. 그러면 축산계 담당직원은 매년 마을 게시판에 농민이 자기 메뉴에 맞게 신청하라고 게시했는데 왜 못봤냐고 하니 어떠한 자주바꾸는 정책이 농가에는 홍보부족으로 전달이 잘 안되고 신청한 축산농가도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누락이 되

서 안절부절이다.

그속에서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단속하는 행정당국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96년 가을 날씨가 풀리면 준공할 농가에까지 찾아와서 공사현장 사진을 찍고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니 어디 그뿐인가 톱밥토양 여과장을 설치해서 허가받은 후 사용해보니 낙농에 경우 분뇨처리가 불가능해서 이 겨울에 트랙타로 축분을 신고 가서 밭에 직접 살포하니 6개월이상 완전히 발효된 축분이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킨다고해서 할 수 없이 살포 즉시 쟁기로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 부농에 꿈을 펼칠 수 있는 농촌상을 농민에게 제시한 문민정부의 정책인지 96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며 가입한 OECD 회원국 우리도 이제 의젓한 OECD 회원국 이라고 자랑하며 회원국으로서 환경문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며 환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OECD회원국 들은 축산분뇨를 우리나라 처럼 환경에서 축산폐수로 규정짓고 있는지 아니면 축산분뇨 처리법의 최종목표를 자연환경보존에 두고 퇴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는지 묻고 싶다.

또 그들은 축산농가 분뇨처리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배워서 실천하라고 말하고 싶으며 우리 실정에 안맞는 법을 외국에서 복사해다가 축산농가에서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큰 무리라고 본다.

축산분뇨는 국토를 살리는 고귀한 자원

우리 축산농가도 잘 알고 있다. 환경을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이 환경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며 이것을 방지했을 때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듯 우리 인간도 한지역이 폐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지금도 늦지는 않다. 그동안 우리 축산농가에서 시설확장과 가축두수 증식에만 중점을 두고 환경쪽을 다소 소홀히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정부는 선진 OECD회원국답게 앞장서서 축산분뇨를 국토살리는 보약으로 생각하고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일정기간 잘 부식되도록 보관할 분창고, 저장조 등 축분보관시설과 축분을 처리해서 토양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전액 국고에서 축산농가가 필요시 즉시 지원해 주어 아름다운 우리 농촌이 깨끗한 자연환경속에서 우리 축산분뇨 처리정책을 펴나갈 때 이 나라에 흙도 새생명을 찾고 환경도 살리며 축산인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보며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축산분뇨가 국토를 살리는 가장 고귀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기름진 토양을 우리 후손에게 꼭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인 동시에 환경보호의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투자할 때 우리 농촌은 부농의 꿈을 안고 많은 젊은이가 돌아와서 축산업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할 수 있게 정부당국에 아낌없는 정책적 배려를 나는 부탁하고 싶다. ☎(필자연락처: 0451-641-9330)